

명품 브랜드 육성... '농촌형 농협' 선도

농협, 새 희망을 연다

<1> 광주 대촌농협

전국 첫 동시선거로 치러진 3·11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일부 과열 양상도 보였고, 구태도 나타났다.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협동조합 정신을 살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난하게 소화하는 등 성과를 냈다. 또 선관위 관리에 동시선거를 잘 치러내면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더 나은 농협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한 단계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선거를 마친 이제부터는 동시선거에 모아졌던 열기와 관심, 열정을 조합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일보는 끊임없는 개혁으로 희망을 심고 있는 지역 농협과 조합장을 찾아 생생한 현장을 소개한다.



대촌농협은 도심 근교에 위치한 '농촌형 농협'으로 농산물 명품화를 주도하며 시들어가는 농촌에 희망을 심고 있다. 전봉식 조합장(왼쪽 두번째) 등 직원들이 파프리카 농가를 찾아 작황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대촌농협(조합장 전봉식)은 협동조합 정신에 가장 충실한 '농촌형 농협'으로 이름이 나 있다. 조합원 2000여명에 자산규모 1041억의 작은 규모지만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으로 전진을 계속하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기운을 심는 모범조합으로 비상하고 있다.

이름 '농촌형'이라는 입지를 최대한 살리고 공동선별·공동계산제를 적용하는가하면 자체 브랜드를 개발, 농산물 명품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촌농협은 지난해 풋고추와 부추, 토마토 농가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3개 공동선별회를 운영해 3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동선별한 농산물은 '빛찬들' 브랜드를 달고 출하해 높은 품질로 소비지에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올해는 공동선별·공동계산 품목을 파프리카까지 늘려 4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공동선별 출하 외에도 대촌농협은 시설원에 품목을 순회수집을 통해 계통출하함으로써 지난해 263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뒀다. 이제 자체 브랜드인 '대촌사람들'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파프리카를 계통출하하고 있는 이승주씨(58·남구 승촌동)는 "수확만 해놓으면 농협에서 가져다 제값을 주고 팔아주니 정말 편하다"며 만족감을

'빛찬들' '대촌사람들' 만들어 공동선별·공동계산제 운영도 지난해 조합 출자금 전국 3위

을 표시했다.

대촌농협은 친환경 농법인 '미생물 배양사업'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지역 특화작물인 원예작물의 친환경적인 재배와 함께 생산량 증대,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생물 배양사업을 추진한 것이 밑거름이 됐다. 2013년 1억6000만원을 들여 30t 규모의 배양시설 2기를 추가 설치해 매년 '젤라틴&키티린'성분의 미생물을 600여t을 보급한다. 이는 방제비용 절감과 농작물 품질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친환경 농법의 활성화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하는 GAP(우수농작물 인증) 농산물의 수확이 늘고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판매사업 활성화는 구매사업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대촌농협의 영농자재 판매실적은 58억원으로 1년 사이 매출이 2억원 이상 늘었다.

대촌농협은 신용사업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 2012년 상호금융 클린뱅크 평가에서 실버-클린뱅크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해 말 현재 연체비율은 1.5%로 전국평균 2.3%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자산건정성 분야에 탁월한 실적을 내고 있다. 조합 출자금 역시 지난해에만 8억 6000여만원이 증가, 전국 농촌형 농협 중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조합원 고등학생·대학생 자녀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원로조합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다.

희망을 심는 모범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촌농협의 노력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올해도 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생산자금 지원(매년 50억원)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농산물 제값 받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조합장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대촌농협 종합정사 신축과 주유소 신설, 효천1지구와 압촌동 도시첨단단지지구 지원 개설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홍성운 대촌농협 전무는 "도시소비자들의 최신 트렌드인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한다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에 희망을 주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선진 농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농현장 동고동락... 농산물 제값받기 앞장"

전봉식 조합장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통사업을 혁신하고 학교급식 납품도 적극 추진해 농가소득 향상에 앞장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로 '영농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 조합장의 소임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는 전봉식(69) 조합장은 "농협 전 직원들이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 농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수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계획면적 500ha에 시비 자부담 포함 3억3000만원)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할 생각이다.

조합장 당선과 함께 올해부터 조합운영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는 전 조합장은 "현재 농촌형과 도심형에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는 생산자금을 지역 농협의 유형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며 "시들어 가는 우리 지역 농협이 경쟁력을 확보해 선진 농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흥건설 압수수색... 지역 경제 불똥 튀나

순천·광교 아파트 분양 연기 협력사 1000곳 영향 불가피

지역 중흥건설이 중흥건설이 검찰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여파로 일부 아파트의 신규 분양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분양실적이 전국 3위인 중흥건설은 올해 1만35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인데다 협력사만 1000여 곳에 이르는 등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중흥건설의 앞날에 지역 경제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29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오는 4월 순천 신대지구 438가구와 5월 광교신도시 2300가구, 세종시 2-1생활권 1446가구, 7월 세종시 3-1생활권 130가구, 10월 전주 만성지구 615가구, 청주 방서지구 1650 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 436가구 등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공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하자 금융권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기획대출)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일부 아파트의 분양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건설은 특히 분양 시점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광교 신도시와 순천 신대지구

는 분양을 2개월 가량 잠정 연기했다. 광교 신도시 아파트 부지는 중흥건설이 지난해 11월 7500억원에 낙찰받아 랜드마크 사업으로 진행해왔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장 가운데 PF 대출비율이 높은 광교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대출을 부담스러워 해 공급을 미루게 됐다"며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 분양 시장에서 GS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제치고 분양 실적 3위를 차지했던 중흥건설의 공급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자 당장 파문이 미치는 곳은 협력사들이다. 중흥건설은 현재 전국에 30여 곳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사가 진행중인 곳만 25곳에 이른다. 협력사는 1000여 곳으로 종사자는 7000여 명 규모다. 협력사들은 한 현장이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분양이 미뤄지면서 공사현장을 잃게 될 처지가 됐다.

한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광주 등 지역 분양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건설업체가 모처럼 봄바람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중흥건설 사태가 불거져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챔피언스필드 입장권 1000원 할인 서비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015년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 올 시즌 기아타이거즈 홈구장 입장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광주카드를 입장권을 현장에서 대표 시(인터넷에 포함)에 본인에 한하여 1000원을 할인해준다.

광주은행 카드사업부 박정민 부장은 "지역민에게 인기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프로 야구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카드는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성경제인 데스크' 운영 광주 여성기업지원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센터장 조애옥·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내에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해주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여성경제인 데스크(DESKE)'가 설치·운영된다.

30일 오후 2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에서 열리는 현판식에는 류봉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유용민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이민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5	24	31	32	33	40	1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35,763,625			6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8,971,248			43	
3	5개 숫자일치	1,662,796			1,525	
4	4개 숫자일치	50,000			84,656	
5	3개 숫자일치	5,000			1,407,225	

200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령고등학교 옆)